

20년간 진행 양희은

“‘여성시대’의 힘은 청취자들의 어깨동무와 가슴으로 보내는 편지”



공동 MC 서경석 (오른쪽)

‘여성시대’ 대학에서 학사 학위 따고 공부하는 기본 방송 시간 1만 4600시간 ... ‘골든마우스상’도 받아

“그만뒤야지” 하면서도 청취자들 사이 안 보이는 어깨동무, 연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런 것들이 ‘여성시대’의 힘, ‘여성시대’가 주는 위로가 아닐까요.”

가수 양희은(67)은 4일 마포구 상암동에서 열린 MBC 표준FM(95.9MHz) ‘여성시대’ 기자간담회에서 “‘여성시대(大)’라는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따고 또 따고 그렇게 공부하는 기분”이라며 진행 20주년을 맞은 소회를 밝혔다.

오는 7일은 그가 ‘여성시대’ 마이크를 잡은 지 꼭 20년이 되는 날이다. 그가 ‘여성시대’를 진행하는 동안 방송된 편지는 5만 8000여통, 방송 시간은 1만 4600시간에 이른다.

양희은은 ‘여성시대’로 MBC가 20년 이상 라디오를 진행한 사람에게 주는 상

‘골든마우스상’도 받게 됐다. 이종환, 김기덕, 강석, 김혜영, 이문세, 배철수, 최유라, 임국희에 이은 역대 9번째 수상자다.

양희은은 “20년을 목표로 이 방송을 시작했다면 절대 할 수가 없다. 그저 1~2년 정도 생각했다”며 “밖에서 볼 땐 감탄하겠지만 그냥 하루하루가 쌓인 것일 뿐”이라고 답답히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시대’ 인기 원동력으로는 “털어놓지 못하는 얘기를 털어놓는 그 가슴이 편지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다는 객관화를 거치고, 그렇게 매 맞는 애는 씬터로 나올 용기가 생긴다”며 “저 어려움이 편지 나도 알고 있다고 할 때 일어나는 공감의 파도가 ‘여성시대’의 힘이자 위로”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성시대’ 사연들이 가볍다가

보단 묵직하게 감성을 누르는 사연들이 많았다. 제 갱년기와 겹쳐서 너무 힘들었다”고 털어놓으며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연으로 ‘희재 엄마’라는 청취자가 보낸 사연을 꼽았다.

양희은은 아련한 목소리로 “너무 아파 팔도 잘 쓸 수 없는 딸기 암 환자 희재 엄마가 아들 생일 축하 편지를 사후에 걸쳐 써서 보내준 편지였다”며 “당시 30주년 음반을 준비 중이었는데 희재 엄마와 이 땅의 많은 소녀 가장들에게 헌정하는 음반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음반을 그렇게 만들었던 기억이 난다”고 덧붙였다.

20년간 라디오를 진행한 비결로 그는 “‘여성시대’는 사람들이 욕심을 갖고 글을 쓰는 곳이 아니다. 자기를 정리하고 털어놓는 프로그램”이라며 “MC로서의 기술은 정말 필요가 없다. 그냥 전달만 잘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담을 정확히 하려고 애썼다. 사투리가 들어가면 사투리도 섞여가며

하고, 안 보던 TV 드라마에 사투리를 잘 쓰는 배우가 있으면 유심히 듣기도 했다”며 “그런데 그게 비결도 아니고, ‘여성시대’의 모든 힘은 편지 써서 보내주는 사람들의 가슴에서 온다”고 재차 강조했다.

1993년부터 지금까지 ‘여성시대’에서 방송작가로 일한 박금선 작가는 “양희은 선생님 개인에게 오는 편지도 많다”며 “양희은 선생님이 안아주면서 비밀을 지켜줄 것 같고, 또 약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아담쳐줄 것 같은 느낌이 있다”고 설명했다.

30년이 넘는 장수 프로그램인 만큼 사회 변화상도 프로그램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양희은은 “예전엔 폭력 남편 사연이 많이 왔지만, 요즘은 달하다”면서 “‘여성’이라는 이름을 내건다는 건 그만큼 여성에게 아픔이 많다는 얘기도 하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제목 앞에 다는 ‘여성’이라는 단어가 없어지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연합뉴스

윤종신, 방송 하차 ... “음악 활동에 전념”

내년 ‘이방인 프로젝트’ 계획

가수 겸 방송인 윤종신(50·사진)은 4일 음악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MBC TV ‘라디오스타’ 등 출연 방송에서 하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종신은 이날 자신의 SNS에 “내년 2020년 ‘월간윤종신’이 10주년을 맞게 되는 해에 제가 꾸무고 바랐던 ‘이방인 프로젝트’(NOMAD PROJECT)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제작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왔고 올해 10월에 떠나보려 한다. 해왔던 방송들은 아쉽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려 한다”고 말했다.

윤종신은 2007년 5월 ‘라디오스타’가 ‘황금어장-무릎팍도사’ 서브 코너로 출발할 때부터 12년 동안 단 1회도 빠지지 않고 프로그램을 지킨 터줏대감이다. ‘라디오스타’는 뮤지션 출신인 그에게 ‘간짜거리



는 서브 MC”라는 예능인 이미지를 굳힌 일등공신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라디오스타’ 제작진 측은 “윤종신의 하차는 제작진과 잘 상의했다”며 “하차 시기는 조금 더 상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종신은 방송을 하차한 뒤 오는 2020년 ‘월간 윤종신’ 프로젝트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SNS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미스틱 스토리 식구들의 고마운 동의 속에서 2020년 ‘월간 윤종신’은 제가 살아온 이곳을 떠나 좀 더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곳을 떠돌며 이방인의 시선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썼다. /연합뉴스

MBC TV ‘검법남녀’ 시즌2 첫 방송

정재영·정유미·오만석 출연

빠른 전개와 생생한 부검 장면으로 눈길을 끈 MBC TV ‘검법남녀’가 시즌2가 3일 밤 첫 방송됐다.

시즌1의 정재영(49)과 정유미(35), 오만석(45)이 각각 까칠한 법관 백범과 신인 검사 은솔, 동부지검 형사18부 검사도지한 역을 그대로 맡아 연기하고, 노도철 PD와 민지는 작가가 다시 한번 의기투합했다. 시즌2는 시즌1의 엔딩을 장식한 ‘오만상 사건’에서 시작한다. 신인에서 어떠한 흔적도 발견하지 못한 백범이 의혹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는 가운데 새 사건을 만난다.

정재영은 3일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시즌1도 재밌게 찍었다. 법의관과 검사가 공조하는 드라마가 국내에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시즌1으로 끝내기에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보여줄 에피소드가 많았던 것도 아쉬웠고, 그래서 시즌2를 한다고 했을 때 반가웠다”며 시즌1과의 차이점으로는 “캐릭터가 크게 바뀐 건 없고 좀 더 현실적인 인물이 된 것 같다. 시즌2에선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고 헛발질도 하고 그러니까”고 설명했다.

정유미는 “이전 시즌에선 열정만 가득 한 채 현장에 덩벼들다가 백범에게 혼나는 캐릭터였는데 지금은 1년차 검사”라며 “시즌2가 될 때까지 시간이 흐른 만큼 은솔도 시간을 보내왔다. 전보다는 조금 더 성장한 검사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고 자신했다.

노도철 PD는 “시즌1은 준비기간 없이 급하게 찍어 퀄리티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시즌1에서 워낙 보여주지 못한 게 너무 많았다”며 “시즌2는 제대로 만들었다”고 호언장담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모
9	30 KBS 뉴스	00 여름이 부탁해(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30 2019 메이저리그 류현진 선발경기 <LA다저스:애리조나>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한국인의 밥상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단, 하나의 사랑(재)		00 애니갤러리 30 애니메이션 런닝맨 2 스페셜 45 내 친구 요리리
12	00 KBS 뉴스 12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테마스페셜
1	00 KBS네트워크특선 별의별 중계 50 다큐 공감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40 세계는 지금 스페셜 50 전국노래자랑(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좌충우돌 만국 유람기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30 침착한 주말(재) 55 이몽(재)	00 SBS 스페셜(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파파독 2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55 오매 전라도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50 용왕님 보우하사	00 백중원의 골목식당(재)
7	00 KBS 뉴스 7 40 미니디큐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품지락
8	05 집중 인터뷰 이사람 30 여름이 부탁해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55 불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10	00 시사토론 '10' 55 오늘밤 김제동	00 단, 하나의 사랑	05 살맛나는 세상	00 절대 그이
11	35 UHD 숨터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재)	05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중원의 골목식당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재)		35 스포츠 다이어리 50 함께사는 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명탐정 피트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페파 피그(재)
06:0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1~5
06:20 세계테마기행(재)	12:10 EBS 초대석	19:00 제로니모 스티븐의 모형
07:00 로보카 폴리	13:00 지식채널e	19:30 생방송 판다다
07:15 꼬마버스 타요	13:10 최고의 요리비결	20:00 갤럭시 프로젝트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3:40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	20:40 세계테마기행
07:45 페파 피그	14:30 꼬마버스 타요(재)	<중국음식기행 3부 장수 밥상>
08:00 똥동맹 유치원1~2	15:00 출동! 피자마 삼총사	21:30 한국기행
08:30 몬카트	15:30 뽀롱뽀롱 뽀로로(재)	<여수의 사랑 3부
08:45 최고! 호기심딱지 시즌4	15:45 출동! 슈퍼워즈(재)	나만 알고 싶은 심 평도)
09:00 마사와 곰	16:00 최고! 호기심딱지 시즌4(재)	21:50 EBS 다크프라이미
09:30 원더볼스	16:15 세미와 매직큐브	22:45 극한직업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스페셜	16:30 똥동맹 유치원1~2(재)	23:55 EBS 초대석
10:30 한국기행(재)	17:00 EBS 뉴스	24:50 글로벌 특선다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子	丑	寅	卯	辰	巳
36년생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48년생 오랜 가뭄 끝에 단비를 만난 격이다. 60년생 전혀 예상치 못한 영국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될 수도 있다. 72년생 잘만 활용하면 생산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84년생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라. 행운의 숫자 : 43, 27	37년생 발전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49년생 심정을 이해 해 주는 이가 아무도 없다. 61년생 활로를 열어 줄 수도 있는 조건이 보인다. 73년생 실질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단계이다. 85년생 소홀하다가는 결정적인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 행운의 숫자 : 28, 71	38년생 마무리를 해야 할 단계이다. 50년생 여건의 변화에 따르지 않으면 아니 된다. 62년생 지나친 경계심은 활동 환경을 축소시킨다. 74년생 중차대한 정보를 얻게 될 지도 모르니 귀를 열어 두자. 86년생 간접적인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93, 83	39년생 넘치려는 것은 통제하여야만 한다. 51년생 발전 할 수 있는 모습의 요체이다. 63년생 기서유역의 이치에 의해서 양지가 음지가 되고 음지가 양지로 바뀌리라. 75년생 도량이 달라진다. 87년생 본디부터 없었던 것이나 같으니 집착할 필요 없도다. 행운의 숫자 : 78, 01	40년생 지나라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리라. 52년생 조짐이 보이거든 즉시 대처하는 것이 옳다. 64년생 한 발짝 물러서서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 76년생 의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낫다. 88년생 막혔던 숨통이 터지는 활로가 보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9, 49	41년생 지속적이어야 한다. 53년생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은 매우 힘들고 험하겠다. 65년생 새로운 요소가 개입되면서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높다. 77년생 개별적으로 행함이 편하다는 것을 알라. 89년생 여유를 갖고 한 발짝 물러서서 돌이켜 봐야겠다. 행운의 숫자 : 67, 29
42년생 세차게 쏟아질 것이니 피하고 봐야한다. 54년생 지금의 판도가 미래의 정황과 부합하여 무방하겠다. 66년생 마음을 들뜨게 하는 즐거움 일이 보인다. 78년생 길사와 연결 될 가능성이 확인해진다. 90년생 기본에 충실 했을 때 성공률이 높다. 행운의 숫자 : 82, 31	43년생 허점이 보인다. 55년생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67년생 자신을 상대에게 맞추는 편이 백 번 나올 것이다. 79년생 주체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후회한다. 91년생 당분간 말없이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73, 95	44년생 대단한 성과를 거두는 성국이다. 56년생 대체로 온 변화의 시도와 응용이 이롭다. 68년생 가까스로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시세이다. 80년생 의욕적으로 실행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이다. 92년생 담백하고 말하는 센이 입만 아플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4, 79	45년생 편리함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57년생 기대하고 있었던 바가 커서 낙심하겠다. 69년생 작은 것을 취 하려다가 큰 것을 버리겠다. 81년생 미래를 위한 투자로 여긴다면 문제는 없다. 93년생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6, 85	46년생 경우를 따라서는 생각될 수 있다. 46년생 세부적인 점검과 면밀한 분석이 절실한 시점이다. 58년생 본디의 것과 거의 비슷한 형태를 이루리라. 70년생 소중한 사람이나 정보를 접하게 될 수 있다. 82년생 재물을 크게 열렸으니 잘 활용해 보자. 행운의 숫자 : 89, 77	47년생 전혀 의식할 필요 없으니 소신껏 행해도 된다. 59년생 힘들더라도 참아야만 발전된 판세를 도모할 수 있다. 71년생 의견을 개진하다보면 가뭄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83년생 원님 뒤에 나팔 불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27, 03